

고객과 더불어 함께 하는 남양건설(주)



도농동 | 좋은집

남양 건설은 1958년에 창립 이래 '고객과 더불어 함께'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지향하며,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객감동의 신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1군 종합건설업체이다.

반세기의 세월속에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직 건설업에만 온갖 역량을 다해온 남양 건설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기술 노하우와 우수한 인력이 축적되어 국제개방이라는 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매출규모가 6천억원에 이르는 명실공히 건설업의 대표주자이다.

또한 선진경영 기법을 토대로 국토개발과 주택보급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남양건설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 박병기 기자)

완벽 안전시공 '고객신뢰 최우선'

남양건설은 건설한 시공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이다.

45년간 건설외길을 걸어오면서 쌓은 시공 노하우는 대형건설업체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수훈과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농업기반공사의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되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상(광주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수상 했으며, 2002년에는 산업재해를 전국1위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남양건설의 기술력과 신뢰도는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검증 받았다.

주로 관급공사위주로 회사를 운영하여 탄탄한 내실운영을 기하고 국내종합건설업체중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57위인 1등급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전국에 주택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 남양건설의 숨은 진가를 발휘했던 것이 바로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이다. FIFA(국제축구연맹)가 가장 우수한 경기장이라고 평가한 광주 월드컵경기장은 순수한 국내기술로 시공함으로써, 남양건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결집체라 할 수 있다.

올해에도 연도향건설공사, 울산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 터

미널 축조공사 등 많은 관급공사를 수주하였다. 또 주택사업도 서울 염창동, 전주효자동, 남양주 도농동 2차 등의 재건축과 광주 신창지구, 전주 서신지구, 경기도 남양주, 순천 등에 약 4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준비하는 활기찬 사업전개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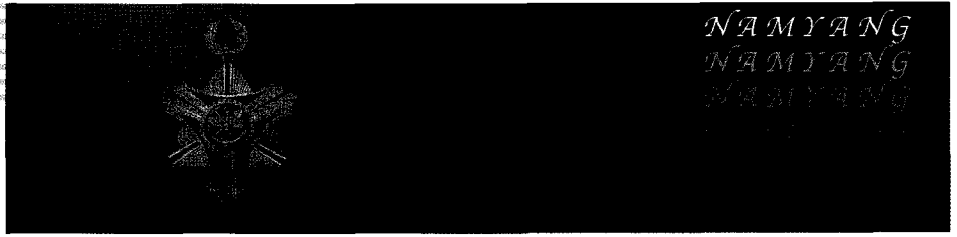
'C/G 03 운동' 추진-안전관리통제시스템 도입 등

남양은 '깨끗하고' (Clean), '안전한' (Green)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심유도를 위한 안전시설 위험신고함 설치 운영, 전직원 책임 안전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잠재 위험요소의 사전 발굴 개선, 협력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통제시스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C/G 03 추진운동' 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에는 0.34%(전국 42위)였던 산업재해율이 2001년에는 0.13%(전국 13위)로 향상 되었으며, 금년에는 0.07%(전국 1위)라는 경이적인 산업재해율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2000년부터 3년 연속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

아이의 행복까지도 생각한 가족행복공간 '남양 i-좋은집'

지난 20여년간 2만 5천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



한 남양건설은 1994년 서울 홍제동 아파트 사업을 필두로 의왕,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남양 'i-좋은집'이란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치밀한 시장분석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경기도 구리 수택동 아파트(319세대)와 남양주 도농동 아파트(1,064세대)를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분양완료 하였다.

이런 실적을 입증 하듯이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주거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i-좋은집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란 소중함을 주요 컨셉으로 한다.

조그만 공간에 신경을 쓰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건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집만큼은 가장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어야 하기에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설계를 곳곳에 반영한 아파트를 개발한 것이다.

현재는 남양주 도농동과 구리 수택동 아파트의 성공 분양에서 보여준 고객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여 서울 수도권, 충청, 전남북 지역에서 하반기에 새로운 i-좋은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과 평면개발에 전력 질주하여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 입주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기업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경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기업목표를 설정,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기업 정보화 일환으로 약 20여억원을 투입하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였다.

정보화 지식경영은 기업의 관리역량 제고 및 건설업 특성에 적합한 정보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내의 모든 자원을 D/B화 하여 이를 상호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공유 프로세스화하여 현 실무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경영을 가능케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개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경



광주월드컵경기장

정보화 선도기업에 앞장

영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 마인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전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산 및 인터넷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며 전산운영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매년 '전사원 한마음 연수교육'을 시행하여 변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근무 마인드 형성, 신기술 및 전문 기술능력 배양, 의식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조직력 강화로 목표달성 극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영역

건축사업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룬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하여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광주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예술적 조형적 건축물의 완성과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공으로 시공우위를 자랑한다.

토목사업

고속도로, 연륙교, 하수종말처리장, 간척사업, 상·하수도, 철도, 도로, 택지, 항만, 댐공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45년간의 토목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주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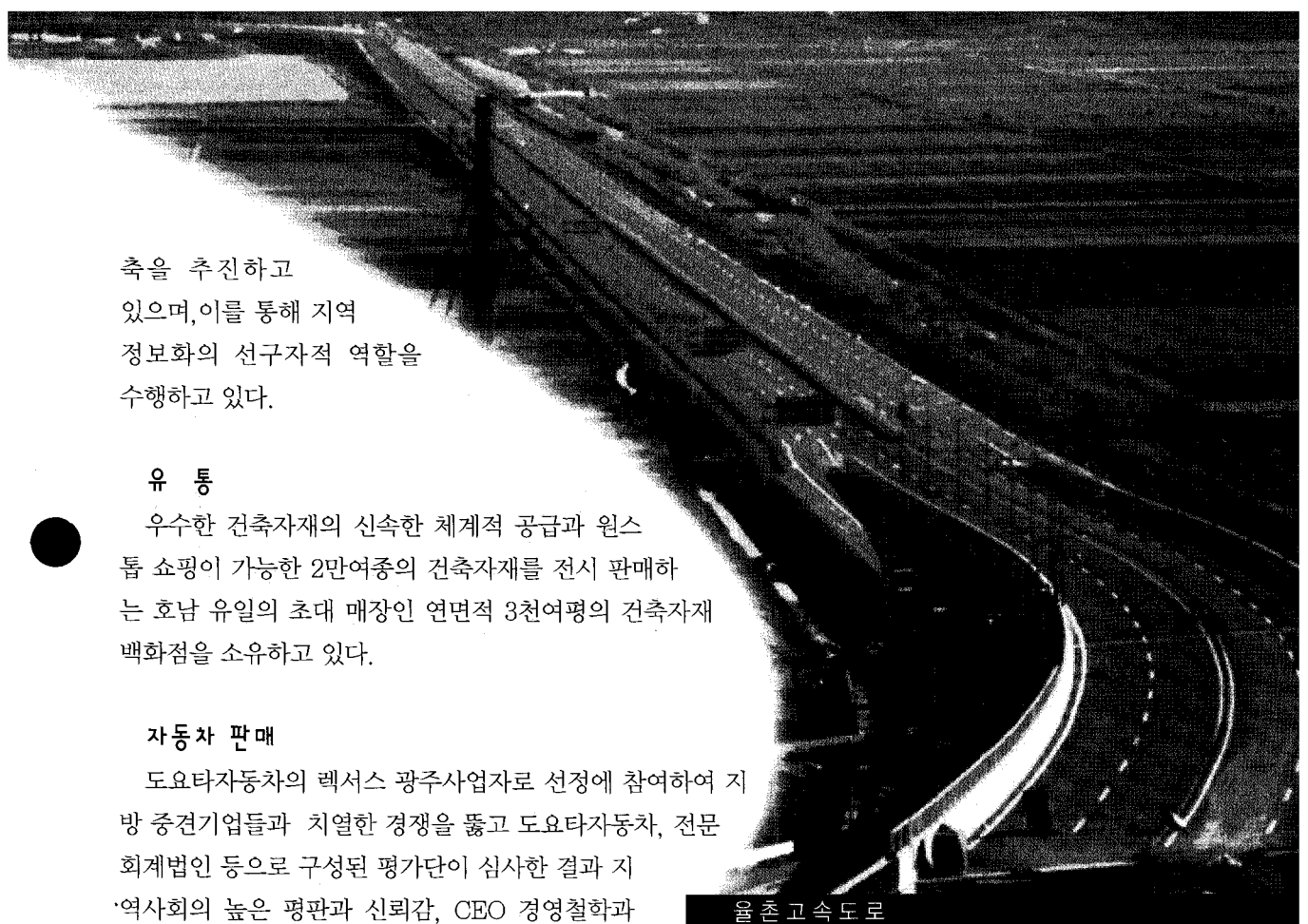
지난 20여년간 전국에 걸쳐 2만 5천여 세대의 풍부한 주택건설의 노하우를 쌓아 '신기술, 신감각, 신공간'의 3대 뉴이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미래의 친자연 환경의 신주택문화 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정보기술

21세기 기업의 생존전략을 정보화 및 디지털화에 두고,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 환경개선을 포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추가 도입하고 B2B, B2C 등 새로운 e-business의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



광주종합문화예술회관



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정보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통

우수한 건축자재의 신속한 체계적 공급과 윈스
톱 쇼핑이 가능한 2만여종의 건축자재를 전시 판매하
는 호남 유일의 초대 매장인 연면적 3천여평의 건축자재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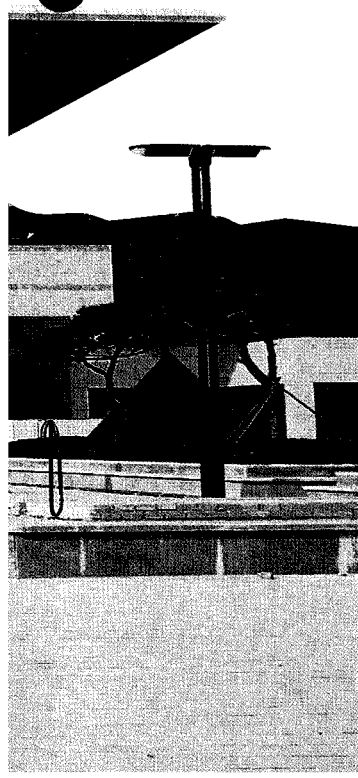
자동차 판매

도요타자동차의 렉서스 광주사업자로 선정에 참여하여 지
방 중견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요타자동차, 전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한 결과 지
역사회의 높은 평판과 신뢰감, CEO 경영철학과
마인드, 치밀한 사업계획서 구성 등에서 높은 점
수를 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고객만족을 위한 3S개념(Sales, Service, Spare Parts)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자동차 판매사업 영역에
진출하였다.

울촌고속도로

고객과의 관계도 의리가 중요



남양건설은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면서 남
보다 더 멀리 보고 본분에 충실한 경영으로 돈 보다는 사업을 중시하고 사업보
다는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건설이란 사람들의 생활 공간으로 결국 사람인 것이다. 인연을 맺으면 의리
를 중요시 여기며 '고객과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좋은
건설을 실천하여 고객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

외형만을 지향해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 확장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민자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
고,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전력 질주 할 것인 남양건
설은 새로운 미래상을 짐작할 수 있다. (주)